

## 베르테르 효과와 파파게노 효과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미디어의 자살관련 내용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하는가?\*

이 동 훈	엄 희 준 <sup>†</sup>	정 다 송	이 다 미
성균관대학교 외상심리건강연구소 교육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석사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석사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미디어의 자살관련 내용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베르테르 효과와 파파게노 효과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에서 2021년까지 21년 간 출간된 국내외 학술논문을 검토하였고, PRISMA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38편의 연구문헌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헌들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에서의 자살관련 내용의 노출 영향에 관한 논문 수는 국내의 경우 2009년과 2014년에 증가하였으며, 해외의 경우 2019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디어의 자살관련 내용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을 주제별로 살펴본 결과, 베르테르 효과(31편), 파파게노 효과(5편), 자살관련 미디어 노출의 영향없음(3편)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베르테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특성(생물, 심리, 사회), 미디어 양상(보도태도, 보도량, 보도방법), 자살사망자의 특성(유명인, 본인과 유사한 대상, 자살방법, 실제자살), 기타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파파게노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적 모델링 및 자살예방지식(자살위극복사례, 자살예방정보)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및 청소년 포함 전연령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요인을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하는 위험요인과 파파게노 효과를 가져오는 보호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연구결과의 의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자살행동, 미디어, 베르테르 효과, 파파게노 효과, 청소년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3A2A02089682).

† 교신저자 : 엄희준,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호암관 50204호, Tel: 02-740-1984, E-mail: hjum722@gmail.com

Copyright ©2023,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은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긴 시간 동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달성했다. 통계청(2018)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10대 청소년부터 30대 성인까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COVID-19로 인해 최근 고립감,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심리적 증상을 호소하는 이가 늘어나고 있으며(임우하, 2021; Hwang et al., 2020), 그 중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자살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Jones et al., 2021). 또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대해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 브라질 청소년의 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지표의 연관성을 살펴본 Jaen-Varas 등(2019)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불평등 및 실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청소년의 자살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Carballo 등(2020)의 개관연구에서는 우울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와 신경증 및 충동성과 같은 행동문제, 가족문제 및 또래갈등과 같은 생활스트레스 사건이 청소년 자살의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짐 된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 무망감, 학업 스트레스도 청소년의 자살행동의 위험요인으로 밝혀졌다(김은영, 김병석, 2020; Ang & Huan, 2006).

국내의 경우, 청소년의 자살과 더불어 성인의 자살률 또한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7년 IMF 이후 경제적 어려움 및 실업 문제로 인해 성인의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성인의 자살률은 꾸준히 증가했다(서동우, 2001).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00년 이후 자살 관련 분야에서는 성인의 자살과 자살 위험요

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한국 성인의 자살 위험요인에 대해 분석한 박은옥(2014)의 연구에 의하면 배우자와의 이혼과 별거, 사별경험이 성인의 자살 생각의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의 자살시도의 위험요인을 확인한 Steel 등(2018)의 해외 연구에서는 약물 남용, 결혼 및 실직이 성인의 자살시도를 높이는 위험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미디어 영향도 자살의 위험요인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났으며, 이는 미디어 사용의 보편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미디어는 특히 청소년에게 소통과 정보교류, 사회참여 등의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배상률, 고은혜, 2015). 청소년의 경우 미디어 환경에 제약 없이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유발상황에서 평소 자신이 동일시하던 유명인의 자살을 동조하여 모방자살 행동을 보일 수 있다(Lee, 2019).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홍명숙(2017)의 연구에서는 연예인에 대한 자살보도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살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 여러 연구에서도 미디어를 통한 자살 관련 내용의 노출이 청소년의 자살률을 높인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Gould et al., 2003; Niederkrotenthaler et al., 2009).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의 자살행동에도 미디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인 자살의 베르테르 효과에 대해 살펴본 Ha와 Yang(202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더불어 성인 또한 미디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유명인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하여 미디어

를 통해 유명인의 자살관련 내용에 노출되었을 경우, 이를 모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는 30~49세의 경우 미디어를 통한 자살 사건을 접한 직후 자살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미디어를 통한 자살관련 내용의 노출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의 자살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미디어를 통한 자살관련 내용의 노출이 개인의 자살위험성을 높이거나 모방자살행동을 하게 하는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라고 부른다. 베르테르 효과는 18세기 말 괴테의 소설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간된 이후 유럽에서 소설 주인공인 베르테르를 흉내 낸 모방자살이 급증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설 속 남자 주인공 베르테르는 여자 주인공인 로테를 사랑했지만, 약혼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실의에 빠져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 이 소설이 출간된 이후 베르테르가 자살한 당시 착용했던 복장과 시행한 방법을 모방해 자살하는 사례가 전 유럽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Phillips는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자살에 대해 연구한 결과 유명인의 자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이에 영향을 받은 대중들의 자살률이 급증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Phillips(1974)는 베르테르 효과를 자신이 모델로 삼거나 존경하던 인물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명인이 자살할 경우 유사한 방식으로 잇따라 자살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흔히 ‘동조자살(copypat suicide)’ 또는 ‘모방자살’로 정의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베르테르 효과에 대해 여러 차례 살펴본 바 있다. 그 예로, 유

명인의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후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Cheng 등(2007)의 연구에 의하면 유명인의 자살보도가 시작된 후 3주 동안 자살 시도 횟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Choi와 Oh(2016)의 국내연구에서 유명인의 자살 뉴스보도가 개인의 모방자살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과 같은 국적의 유명인일수록 자신을 더 많이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 모방자살을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네트워크(facebook)에 올린 자살유서 게시글이 개인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Ruder 등(2011)의 연구에 의하면 facebook을 통한 일반인의 자살유서 공개도 개인의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를 통한 자살보도의 영향은 크게 사회학습이론과 아노미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따르면 모방행동은 모방의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발생한다(Bandura & Walters, 1977).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은 미디어를 통해 자신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개인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대처하는지를 관찰하면서 이를 배우고 모방하게 된다(오지희, 김민정, 2014). 이때, 모방의 대상이 유명인이거나 자신과 유사할 경우, 그리고 모방대상이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써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될 경우 모방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Bandura & Walters, 1977). 이와 더불어, 베르테르 효과는 아노미 이론(Anomie Theory)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아노미는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규범이 사라지고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개인적 불안정 상태를 의미한다. 아노미 이론에 의하면, 급격한 변화

나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개인의 규범적 통합을 방해할 경우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Hövermann et al., 2015; Wray et al., 2011). 예를 들어, 뜻하지 않게 겪게 되는 경제위기, 실업, 전쟁과 더불어 유명인의 자살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경험한 개인은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과거에 살아온 삶이 부당하거나, 삶 자체가 붕괴되어 버린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아노미 상태로 이어져 자살모방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Hoffman & Bearman, 2015). 베르테르 효과의 아노미 이론에 대해 살펴본 Stack(1987)에 의하면,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의 자살은 그 지도자가 대표하는 교단의 규범과 가치를 일시적으로 약화시켜 종교인들 사이에 더 많은 자살을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미디어의 자살보도가 반드시 자살률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미디어가 자살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보도하는가에 따라 대중들의 행동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Etzersdorfer, & Sonneck, 1998). 미디어에서 자살관련 내용을 보도할 때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적 정보와 도움을 제시한다면 이는 오히려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효과를 파파게노 효과(Papageno effect)라고 말한다. 파파게노 효과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 등장하는 주인공 파파게노가 연인을 잃은 슬픔으로 자살하려 하는 순간 요정들의 도움으로 죽음의 유혹을 이겨낸 일화로부터 유래되었다(Niederkröthaler et al., 2010). 최근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파파게노 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그 예로 한국 연예인의 자살에 따른 모방 자살에 대한 자살예방법 및 미디어 지침의 영향에 대해 살펴본 Jang 등(2022)의 연구에 의하면, 유명인 자살

후 30일 동안 총 자살사망자 수는 이전에 비해 13% 증가한 반면, 자살예방법 제정과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이후 일 평균 자살사망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1980년부터 1996년까지 비엔나의 대중매체 보도가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1978년 비엔나의 지하철 개통 후 미디어를 통해 지하철이 자살수단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이후 ‘자살예방협회’에서 미디어 지침을 개발한 이후 자살건수가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Etzersdorfer & Sonneck, 1998). 이와 유사하게 미디어 가이드라인 도입 전후 5년의 자살률을 비교한 오스트리아 연구에서는 미디어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자살 관련 내용 보도 시 자살행동에 대한 대안과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번호를 함께 제시함에 따라 이후 자살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Niederkröthaler & Sonneck, 2007).

이러한 베르테르 효과와 파파게노 효과 이외에 미디어를 통한 자살노출이 개인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주장한 연구도 확인된 바 있다. Martin과 Koo(1997)의 연구에서 1994년 유명인 커트 코베인의 자살 발표 이전과 이후 자살률을 비교하였을 때 청소년의 자살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유명인의 자살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외 연구에서도 미디어를 통한 자살노출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Ferguson, 2019; Till et al., 2014).

최근까지 국내외에서는 자살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왔으나, 베르테르 효과나 파파게노 효과와 같이 미디어를 통한 자살관련 내용의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살

피본 연구는 현저히 적은 편이다. 또한 미디어에서의 자살관련 내용의 노출 효과를 다룬 연구들의 경우 영향이 있다 혹은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혼재하고 있다. 이는 자살사망자가 유명인인지, 비유명인인지, 허구의 자살인지 실제자살인지 혹은 미디어를 통한 자살노출이 집중된 시기인지, 노출이 적은 시기인지에 따라 개인이 보고하는 미디어를 통한 자살노출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통해 베르테르 효과와 파파게노 효과가 실재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미디어를 통한 자살관련 내용의 노출의 영향은 청소년 및 성인 모두에게 취약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출판된 청소년 및 청소년 포함 전연령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에서의 자살관련 내용 노출의 영향을 다루는 선행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에서 2021년에 출판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도별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미디어에서의 자살관련 내용의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실재하는가? 셋째, 베르테르 효과와 파파게노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 방 법

### 검색전략 및 문헌 선정기준

#### 데이터베이스

본 연구에서 문헌고찰을 위해 사용된 논문은 총 8개의 국내외 데이터베이스(DB)에서 수집되었는데, 그중 5개가 해외 DB이며 3개가

국내 DB이다. 해외논문의 경우 ‘PsycInfo’, ‘PsycArticle’, ‘Sage’, ‘SCOPUS’, ‘Springer’에서, 국내논문의 경우 ‘RISS’, ‘DBpia’, ‘Kiss’에서 수집되었다.

#### 검색어 및 검색조건

논문 검색과정에서 해외논문의 경우, 검색조건으로 ‘2000년 이후의 논문’과 ‘Psychology’에 한정하였으며 검색어로 ‘Werther effect’, ‘Suicide Contagion’, ‘Copycat Suicide’, ‘Papageno effect’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검색조건 기간을 2000년도 이후로 선정한 이유는 1994년 이후 인터넷 상용화로 인한 미디어 노출량 증가, 1997년 IMF 이후 국내 자살률 급증, 2005년 이후 국내 유명인 자살의 증가에 따른 동조자살 급증 등과 같은 국내상황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2000년대 이전까지의 출간논문을 포함할 경우 해외 문헌 12,271편, 국내 문헌 418편으로 그 수가 방대하여 연구수행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색어는 1차적으로 연구주제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색된 논문들의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해당논문이 적합한 내용의 연구인지를 결정하였다. 국내논문의 경우, 해외논문과 동일한 과정으로 수행되었을 경우 논문 편수가 1편밖에 되지 않아 ‘심리학’을 검색조건에서 제외하고 ‘자살보도’를 검색어로 추가하였다. 그 이유는 국내의 경우 베르테르 효과라고만 명명하지 않았을 뿐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논문의 경우, ‘Werther effect’는 ‘베르테르 효과’로 ‘Suicide Contagion’은 ‘자살의 전염성’으로 ‘Copycat Suicide’는 ‘카피캣 자살’ 혹은 ‘모방자살’로 ‘Papageno effect’는 ‘파파게노 효과’로 검

색어로 설정하였다.

**문헌 선정 및 제외기준**

본 연구의 문헌 선정 및 제외기준은 표 1과 같다. ‘미디어의 자살관련 내용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하는 것을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 선정 (inclusion) 기준으로 동료평가(peer review)가 시행된 2000년에서 2021년 사이 국내 및 해외 논문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여기서 ‘미디어를 통한 자살관련내용 노출’은 여러 매체를

통해 실제자살 혹은 허구자살을 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살을 다룬 뉴스나 신문기사, 자살장면이 등장하는 TV 프로그램, 자살에 대한 영화나 드라마의 영향을 다루는 논문들이 선정되었다. 자살행동은 자살사고, 자살시도 등을 의미하며 미디어에서의 자살노출이 자살사고,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

문헌선정 시 제외(exclusion) 조건으로는 (1) DB에서의 중복되는 논문 (2) 연구내용이 미디어 혹은 자살보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살행

표 1. 국내외의 문헌선정 및 제외기준

	국내	해외
DB	RISS, DBpia, Kiss	PsycInfo, PsycArticles, Sage, SCOPUS, Springer
검색어	베르테르 효과, 자살의 전염성, 카피캣 자살 혹은 모방자살, 파파게노 효과	Werther effect, Suicide Contagion, Copycat Suicide, Papageno effect
	자살보도	
문헌 선정 기준	(1) 2000년에서 2021년 사이에 발간된 논문 (2) 동료평가(Peer-review)를 통해 학술지에 출간된 논문 (3) 연구대상이 청소년이거나 청소년을 포함한 전연령 대상 논문 (4) 미디어를 통한 자살노출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7) SCI 혹은 SSCI급 논문 (8) 영문 논문 (9) 심리학 논문
문헌 제외 기준	(1) DB에서의 중복되는 논문 (2) 연구내용이 미디어 혹은 자살보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살펴볼지 않은 논문 (3) 미디어 노출을 통한 자살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연구 (4) 연구대상에 청소년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논문(예, 아동 대상, 노인대상, 중장년층 대상, 대상 비명시) (5) 체계적인 논문형식이 아닌 논문(서평, 책, short report, 비평) (6) 영어 혹은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된 논문 (7) 학위논문	(9) 비심리학 논문(의학, 사회학, 인문학) (10) SCI, SSCI급 저널 등재되지 않은 논문

중에 미치는 영향은 살펴보지 않은 논문 (3) 미디어 노출을 통한 자살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연구 (4) 연구대상에 청소년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논문(예. 아동 대상, 노인 대상, 중장년층 대상, 대상 비명시) (5) 체계적인 논문형식이 아닌 논문(서평, 책, short report, 비평) (6) 영어 혹은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된 논문 (7) 학위논문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논문과 국내논문에서 동일하게 제외되었다. 국내 연구의 경우 (8) KCI 논문이 아닌 경우 제외되었고 해외연구의 경우 (9) 비심리학 논문, (10) SSCI, SCI급 저널 등재 논문이 아닌 경우 제외되었다.

자료수집 과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뤄졌으며, 수집된 논문을 바탕으로 최

종 문헌고찰 선정작업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이뤄졌다. 자료수집과정은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 Analysis(이하 PRISMA 2020) 방법론에 따라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다(Page et al., 2021). 본 논문에 활용된 PRISMA 2020은 개발과정에서 두 번의 개정을 거쳤는데, 1999년 개발된 QUOROM(QUality Of Reporting Of Meta-anaysis; 이하 QUOROM)이 2009년 개정되며 PRISMA 2009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20년에 PRISMA 2020이 완성되었다(Moher et al., 1999).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위한 논문 수집과정에서 PRISMA 흐름도에 따라 자료를 검색, 선별, 선정하였으며 그림 1과 같다.

첫째, 초기검색 단계에서 5개의 해외 DB에 검색조건 없이 검색어를 검색했을 시 12,271개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3개의 국내 DB의 경우 418개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둘째, 위 검색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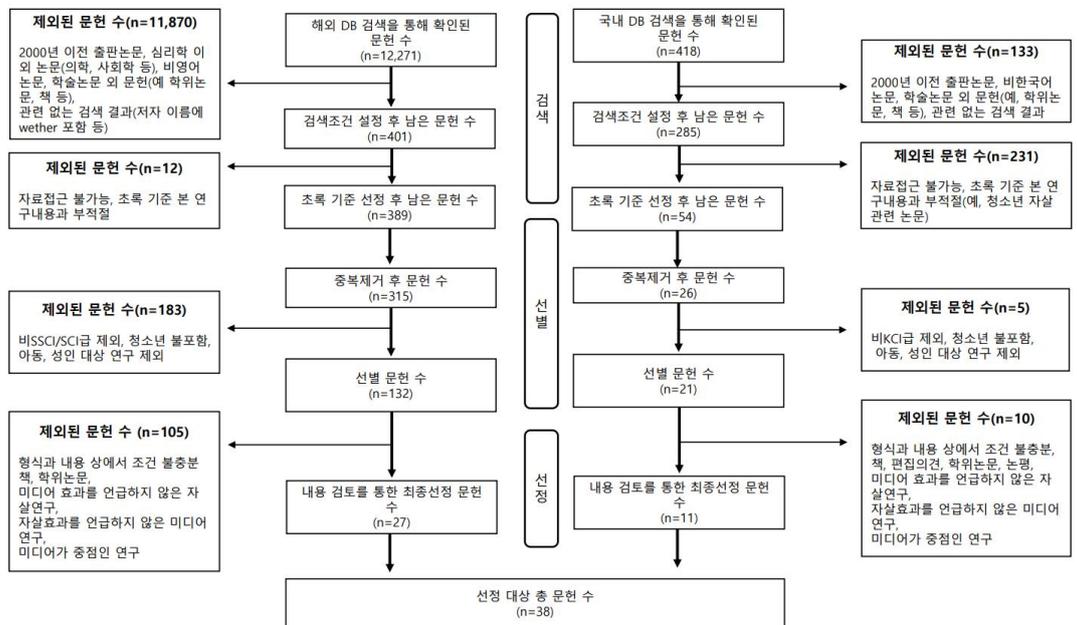


그림 1. 문헌 선정 및 제외를 위한 PRISMA 2020 흐름도

논문들을 대상으로 검색조건을 적용한 결과 해외의 경우 401편의 논문이, 국내의 경우 285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셋째, 이 중에서 자료접근이 가능한 논문을 바탕으로 초록과 제목을 기준으로 본 연구목적에 맞는 논문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 해외 DB는 389개의 논문이, 국내 DB는 54개의 논문이 선별되었다. 넷째, 선별된 논문 가운데 중복되는 논문을 제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DB에서 자료수집이 이뤄졌기 때문에 취합하는 과정에서 중복논문을 제거하였다. 이때, 해외논문의 경우 사용한 검색엔진의 수가 국내논문보다 중복되는 논문 수가 많아 이 과정에서 다수의 논문이 제거되었다. 이 과정에서 해외논문은 315개가, 그리고 국내논문은 26개가 남게 되어 총 341개의 국내외 논문이 선정되었다.

다섯째, 앞서 중복 제거한 논문들 중 논문의 연구대상을 검토하고, 해외논문의 경우 SSCI/SCI급 저널 등재를, 국내논문의 경우 KCI 등재를 기준으로 논문을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청소년 및 청소년 포함 전연령인 논문을 선정하였으며, 청소년 연령은 10~29세로 정의하였다. 이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9~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한 것과 청소년의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직업을 갖는 시기가 점차 늦어짐에 따른 청소년기의 연장, 여러 국가에서 규정한 청소년 정책대상 연령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김윤나, 2008; 김정숙 등, 2016). 이때, 연구대상이 아동, 30세 이상의 성인, 중장년층 혹은 노년층에만 한정되거나 대상의 연령을 명시하지 않은 논문들은 제외하였다. 해외논문의 경우 132개, 국내논문의 경우 21개가 선별되어 총 153개의 국내외 논문이 선별되었다. 마지막

으로 연구내용이 문헌선정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논문을 제외하였으며(예. 미디어 노출을 통한 자살이 아닌 경우), 그 결과 해외논문 27개, 국내논문 11개가 선정되어 최종적으로 문헌고찰을 위해 총 38개의 국내외 논문이 선정되었다.

## 결 과

### 연도별 동향

문헌고찰을 위한 논문수집과정에서 PRISMA 흐름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38편의 국내외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국내의 경우 연구동향이 2009년과 2014년에 증가하였으며, 해외의 경우 2019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별 동향

‘미디어를 통한 자살관련 내용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실재하는가?’라는 주제로 선정된 문헌들을 토대로 주제별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그 결과, 자살관련 미디어 노출이 자살행동을 유발한다는 베르테르 효과는 31편(81.6%), 자살관련 미디어 노출이 자살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파파게노 효과는 5편(13.2%), 자살관련 미디어 노출이 자살행동을 유발하지도 않고 예방하지도 않아 미디어를 통한 자살관련 내용의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없음(No effect)은 3편(7.9%)이 확인되었다.

### 미디어를 통한 자살관련 내용의 노출이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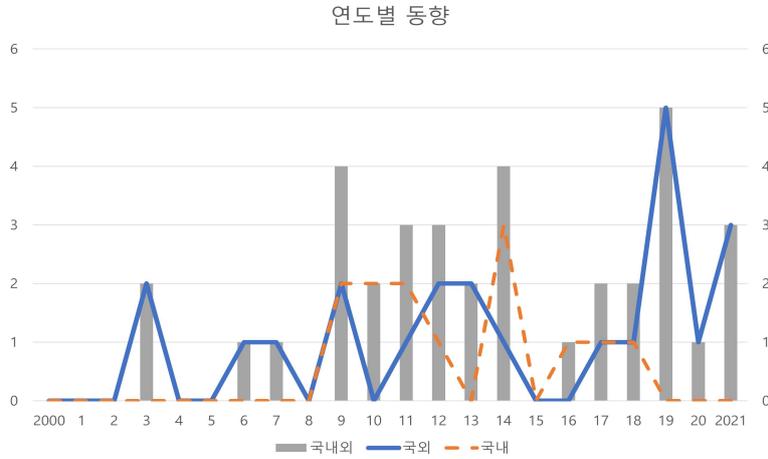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연구동향

표 2. 주제별 연구동향

연구내용 (N=38, 100%)	베르테르 효과 (n=31, 81.6%)		파파게노 효과 (n=5, 13.2%)		자살관련 미디어 노출의 무영향(No effect) (n=3, 7.9%)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빈도수(%)	21(67.7%)	10(32.3%)	5(100%)	0(0%)	2(66.7%)	1(33.3%)

\*1개의 논문이 베르테르 효과와 파파게노 효과를 동시에 다루어 중복 카운트

### 저오는 베르테르 효과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에서의 자살관련 내용의 노출이 자살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살관련 내용의 미디어 노출과 실제자살 간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유명인, 비유명인, TV나 영화의 허구인물 자살로 나누어 그 영향을 분류하였다(베르테르 효과와 관련된 학술문헌 목록은 부록의 표 1에 제시).

### 미디어에서의 자살보도가 자살률 증가와 자살방법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명인의 자살보도. 베르테르 효과가 실제

하는지 살펴본 결과, 여러 선행연구에서 미디어에서의 유명인 자살보도는 자살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Whitley 등(2019)은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로빈 윌리엄스가 자살한 2014년 8월에 전연령대에서 캐나다인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세 이상의 남성의 자살률이 높았으며, 로빈 윌리엄스가 사용한 자살방법인 질식을 통한 자살률이 8월과 9월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Kim 등(2013)의 국내연구에서는 2008년 유명인의 자살보도 이후 24주간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기록 319개를 분석한 결과, 유명인과 비슷한 나이대인 21~40

세의 자살률이 증가하였으며, 유명인과 동일한 자살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인영 등(2009)의 연구에서도 2008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우리나라 연예인의 자살사건 전후 1년간 자살시도로 아주대 응급실에 방문한 10~69세 환자 770명의 내원기록을 확인한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을 통한 연예인 A의 자살 보도 이후 동일한 방법의 자살시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유명인의 자살보도** 유명인뿐만 아니라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의 자살도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미국 연구에서는 15~25세, 25~44세, 44세 이상으로 집단을 나누어 지역방송과 신문의 일반인 자살보도가 각 집단의 자살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지역방송을 통한 자살 보도 이후에 25세 이하 집단의 자살률이 증가하였으며, 신문을 통한 자살 보도 이후에는 25세 이하, 44세 이상의 집단에서 자살률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omer et al., 2006). 더불어 15세~18세 뉴질랜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사건이 발생한 학교들에서 SNS와 문자메시지가 자살전염을 초래하는지 확인한 연구에서는 SNS와 문자메시지가 청소년 사이에서 자살과 관련된 정보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며 이후 공동체 내에서 동일한 자살 방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obertson et al., 2012). 미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SNS에서의 자살노출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에서도 연쇄적으로 발생한 같은 지역 내 청소년의 자살사건에 대한 게시물을 SNS에서 보는 것은 청소년의 자살사고 및 자살행동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wedo et al., 2021).

**TV 시리즈, 영화 등 허구인물의 자살** TV 시리즈나 소설 속 주인공과 같은 허구인물의 자살도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30세 이하 캐나다 청소년의 자살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살을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루머의 루머(13 reasons why)’가 방영된 이후 30세 이하 청소년의 자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inyor et al., 2019). ‘루머의 루머의 루머’는 고등학생인 여자주인공의 자살로 시작되며 남자주인공에게 여자주인공이 자살한 이유가 담긴 13개의 테이프가 전달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마찬가지로 18세 이하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루머의 루머의 루머’와 같은 콘텐츠에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하기 위해 ‘루머의 루머의 루머’가 방영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조사한 결과, 드라마를 본 이후 청소년의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lager et al., 2019). 이에 더해 드라마를 시청한 청소년들은 자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 13가지를 작성하거나 드라마에 나오는 자살 방법을 따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등 드라마 주인공의 행동을 모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디어를 통한 자살보도의 파파게노 효과**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를 통한 자살보도시 자살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거나 자살 예방정보를 포함할 시 파파게노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파파게노 효과와 관련된 학술문헌 목록은 부록의 표 2에 제시).

파파게노 효과에 해당하는 논문은 총 5편으로 해외논문만 있다. 파파게노 효과에 대한 초기연구는 베르테르 효과를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자살보도의 내용

이 자살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는 연구로 확장되었다.

예를 들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홍콩에서 전연령대의 자살률은 줄어드는 반면 대학생의 자살률은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이에 Cheng 등(2018)은 대학생에게 미치는 자살보도의 베르테르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홍콩 지역신문사에게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담은 인터뷰 소개와 자살예방에 관한 연구결과 인용,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 등을 포함하는 2015년 자살보도 미디어 가이드라인(HKJC Centre for Suicide Resarch and Prevention, 2015)을 준수하고, 자살에 대해 자극적이지 않은 보도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하는 뉴스보도가 급감하고 예방적 차원의 자살보도가 증가하였다.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홍콩의 25세 이하 청년의 자살률 증감과 자살보도 방식 사이에 상관성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자살보도방식이 자극적일 때에는 자살률이 증가하였으며, 자살보도방식이 자살예방의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를 보고한 오스트리아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자살위기가 있었으나 이를 적절히 대처하여 결국 자살하지 않은 가상의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Niederkrotenthaler & Till, 2020). 그 결과, 자살에 대한 개인의 위기 대처경험에 대한 가상의 이야기를 읽은 사람은 이후 자살사고가 완화되고 자살예방지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여러 선행연구들은 ‘자살을 예방하는’ 방식의 보도가 자살보도로 인한 자살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 미디어를 통한 자살관련 내용의 미디어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없음(No effect)

관련 연구는 국내연구 1편, 해외연구 2편으로 총 3편이 확인되었다(관련 학술문헌 목록은 부록의 표 3에 제시). Ferguson(2019)은 노래 가사 혹은 영화, TV 프로그램을 통한 자살노출이 자살사고와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주제 논문 20편을 메타분석 연구를 수행했는데, 그 결과 전체연구에서 효과크기가 매우 작았으며( $r=.0.34$ )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기, 최민음(2011)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자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을 살펴본 국내연구 결과 또한 자살보도의 노출량과 자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모두 자살의도와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베르테르 효과 및 파파게노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하는 자살 위험요인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크게 ‘개인요인(생물, 심리, 사회적 요인), 미디어 요인(보도태도, 보도량, 보도방법), 자살사망자의 특성(유명인, 본인과 유사한 대상, 사용한 자살방법, 실제자살)’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각 범주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요인.** 베르테르 효과를 가져오는 위험요인 중 개인요인에 속한 내용들은 ‘생물, 심리,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베르테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서의 개인요인

대범주	중범주	소범주	내용	논문편수	
				국내	해외
생물	연령	- 10대(Gould et al., 2003)			
		- 15-25세, 44세 이상(Romer et al., 2006)			
		- 65세 이상(Frei et al., 2003)	0	3	
	성별	- 여성(Frei et al., 2003; Hagihara & Abe, 2012)	0	2	
	인지	- 자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자살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할수록(배준성, 허태균, 2010)	1	0	
행동		- 과거 자살시도나 자해경험(Naito, 2007; Pouliot & Mishara, 2011)			
	- 물질남용(알코올이나 약물)(Naito, 2007)	0	2		
	- 개인의 자살보도 노출 횟수(오지희, 김민정, 2014; 한수미, 2012)	2	1		
개인 요인	심리	- 정신질환 병력(Naito, 2007)			
		가족 및 또래	- 가족 혹은 친구의 자살 경험(Gould et al., 2003; Naito, 2007)	0	2
	사회	- 정신질환에 관한 가족력(Naito, 2007)			
		기타	- 농어촌 거주자에 비해 도시거주자(Yang et al., 2013)	0	2
		- 별거, 이혼, 사별로 인한 결혼가정(Naito, 2007)			

생물요인. 생물요인으로 연령과 성별이 해당되며, 10대(Gould et al., 2003), 15~25세와 44세 이상(Romer et al., 2006)과 65세 이상(Frei et al., 2003)이 미디어를 통한 자살관련 내용의 노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에서의 자살보도와 청소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 Gould 등(2003)의 개관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중에서도 15세~19세의 경우,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의 자살관련 내용에 노출되었을 때 다른 연령대에 비해 2~4배 정도 더 자살행동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스위스 바젤지역에서의 안락사를 통한 자살률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rei et al., 2003). 구체적으로 안락사를 자살로 볼 수 있

는지 찬반 논쟁이 분분하지만 지역 유명인 부부의 안락사를 통한 자살이 보도된 1995년 3월 19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의 안락사 비율을 살펴본 결과, 부부의 안락사 보도일 전까지의 안락사 사례는 총 7사례였으나 부부의 안락사 보도 이후에 보고된 안락사의 수는 28사례로 확인되었다. 이때, 65세 이상이 65세 미만보다 안락사 비율이 크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의 여성집단의 안락사 비율이 약 4배가량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보다 여성이 미디어에서의 자살관련 내용 노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rei et al., 2003; Hagihara & Abe, 2012). Hagihara와 Abe(2012)는 20세에서 49세 일본인의 자살통계를 바탕으로 일반인의 자살

보도가 20~40대 여성의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2008년 일본에서는 인터넷으로 만난 3명의 청년이 유희를 사용해 자살하였는데 유희를 이용한 자살 보도 이후 유희판매량과 유희를 사용한 자살률이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약국에서 유희 함유 바스솔트의 판매를 중단하자 곧바로 여성의 자살사망률이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남성의 자살사망률은 황화수소 관련 자살 보도와 유희 함유 바스솔트의 판매 중단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요인.** 심리적 요인은 인지, 행동, 기타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베르테르 효과를 일으키는 인지적 요인을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300명의 한국 성인 대상 연구에서 미디어의 자살 보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자살 보도를 접한 후 자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자살을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할수록 자살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준성, 허태균, 2010). 자살 행동 관련 연구로 Naito(2007)의 연구에서는 2003년에 일본에서 발생한 22세, 24세, 26세의 동반자살 사례와 더불어 이 자살 보도 이후 연달아 발생한 14세~30세 청소년의 동반자살 사례 3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살을 모방한 청소년들은 모두 과거에 자살 시도나 자해 경험이 있었으며, 물질 남용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당시 일본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이 인터넷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이었으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동반자살자를 찾았다는 뉴스가 보도된 이후 10대~20대 청소년 사이에서 이를 모방한 자살

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기타요인에 관해서는 청소년의 경우 자살 보도에 적게 노출되었을 때보다 많이 노출되었을수록 자살 사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오지희, 김민정, 2014; 한수미, 2012), 자살에 대한 미디어 노출 이후 자살을 한 개인의 경우, 과거에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ito, 2007).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은 가족 및 또래 요인, 기타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가족 또는 지인의 자살을 경험하거나(Gould et al., 2003; Naito, 2007), 정신질환 가족력이 있는 경우(Naito, 2007)에 자살 행동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Naito(2007)의 일본 사례 연구에서는 자살 보도를 접한 이후 자살한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주변인의 자살을 경험하거나 정신질환을 앓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요인으로 자살 보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대만의 자살률을 바탕으로 실시한 중단 연구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보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 자살 보도 이후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Yang et al., 2013). 일본 청소년 사례 연구에서도 자살 관련 미디어 노출 이후 자살을 한 개인은 부모의 이혼, 사별과 같은 결손 가정에서 자란 것으로 보고되었다(Naito, 2007).

**미디어 요인.** 베르테르 효과를 일으키는 위험요인으로 미디어 요인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보도태도, 보도량, 보도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4).

표 4. 베르테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요인

대범주	중범주	소범주	내용	논문편수	
				국내	해외
미디어	자살 보도 태도	-	- 자살에 대해 동정적으로 보도(오지희, 김민정, 2014) - 자살을 흥밋거리로 다룸(오지희, 김민정, 2014) - 자살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도(Frei et al., 2003)	1	1
		-	- 뉴스보도시간 및 보도횟수 많음(Gould et al., 2003) - 자살관련 내용에 대한 접근성이 좋음(반복적으로 보도되는 동일한 뉴스, 온라인 아카이브에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것)(Ng et al, 2021)	0	2
		자세한 묘사	- 자살방법에 대해 자세한 묘사(Frei et al., 2003; Ng et al., 2021) - 자살장소에 대해 자세한 묘사(Ng et al., 2021) - 자살자에 대해 자세한 묘사(Ng et al., 2021) - 자살정황, 자살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도(양현주, 변은경, 2016; 오지희, 김민정, 2014)	2	2
	자살 보도 방법	자극 적인 묘사	- 자살관련 그래픽 이미지 제시(Ng et al., 2021), - 1면 보도나 헤드라인 사용과 같이 두드러진 보도(Ng et al, 2021)	0	1
		기타	- 프레임 씌우기(자살한 개인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판단적인 묘사)(Frei et al., 2003; Ng et al., 2021) -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정보의 부재(Frei et al., 2003; Ng et al., 2021) -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자살보도(한수미, 2012)	1	2

**자살보도태도** 미디어의 자살보도 태도가 베르테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rei 등(2003)의 연구에서는 스위스 바젤 지역에서 유명한 부부의 안락사에 대한 자살 보도 이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 자살률이 증가하자 지역신문사가 자살보도 권고를 준수하는지 확인한 결과, 지역신문사들이 자살을 부부가 함께 이별을 맞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도 미디어의 자살보도가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미디어에서 자살한 고인에 대해 동정적인 태도로 보도하거나 자살을 흥밋거리로 다룰수록 청소년의 자살사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지희, 김민정, 2014).

**자살보도량** 자살관련 보도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디어를 통한 자살전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972개의 자살보도에 대하여 개관연구(Gould et al., 2003)를 진행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살에 대한 보도시간이 길수록, 방

송국이나 신문사에서 보도를 빈번하게 할수록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말레이시아 18세 이상의 언론 종사자, 정신건강전문가, 과거 자살관련 경험이 있는 개인 21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서 자살보도에 대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와 인터넷 아카이브에 영구적으로 저장되어 언제든 다시 자살보도에 대해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는 경우에 모방자살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g et al., 2021).

**자살보도방법.** 자살보도방법은 자세한 묘사, 자극적인 묘사, 부정확한 정보, 기타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자살방법, 자살장소, 자살자 및 자살동기를 자세하게 묘사할수록 자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양현주, 변은경, 2016; 오지희, 김민정, 2014). 말레이시아인 21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서도 자살자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자살시도를 하였는지, 어디에서 자살을 시도하였는지, 자살한 고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할 경우 모방자살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확인되었다(Ng et al., 2021). 또한 그 연구에서는 그래픽을 제시하거나 자살사건에 대해 두드러지게 보도하는 것이 베르테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자살을 암시하는 그림과 함께 자살을 보도하거나 자살사건을 1면에 보도하고 헤드라인을 사용하여 보도하는 경우 자살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프레임 씌우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정보의 부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자살보도가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자살보도를 접한 후 자살사고가 들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관의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Ng et al., 2021), 자살을 문제 해결의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한 것처럼 자살자를 묘사하는 것과 같이 자살 사망자에 관해 언론이 부정확하고 판단적인 태도로 묘사하여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Frei et al., 2003; Ng et al., 2021)에 모방자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라디오나 TV를 통해 자살보도를 접한 개인보다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자살보도를 접한 개인의 자살사고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수미, 2012).

**자살사망자의 특성.**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하는 위험요인 중 자살사망자의 특성을 ‘유명인, 본인과 유사한 대상, 사용한 자살방법, 실제자살’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유명인의 자살.** 자살사망자가 유명인이고 이 내용이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이는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익중 등, 2010; Gould et al., 2003; Niederkrotenthaler et al., 2009). 또한 972개의 자살보도를 바탕으로 진행한 개관연구에 따르면 비유명인의 자살보다 연예인이나 정치인과 같은 유명인의 자살보도가 개인에게 14.3배 더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Gould et al., 2003).

**연령, 성별이 유사한 대상의 자살.** 연령, 성별 등이 본인과 유사한 대상의 자살보도를 접한 경우에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자살사건 179건에 대한 신

문보도 이후의 자살률을 분석한 결과, 유명인의 자살보도 이후 유명인과 성별, 연령 등이 유사한 대상의 자살률은 증가한 반면 그렇지 않은 대상의 자살률은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iederkroenthaler et al., 2009).

**사용한 자살방법** 자살방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살방법 중 투신자살이 자살행동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Yang 등(2013)의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10년 사이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전체 연령대의 대만인을 대상으로 자살보도와 자살률 간의 상관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투신자살한 사망자에 대한 보도 이후 이와 동일한 자살방법인 투신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독자살한 사망자에 대한 보도 이후 여성과 노년층의 자살률과 목매, 투신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Yang et al., 2013). 이처럼 각각의 자살방법에 따라 보도 이후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허구자살보다 실제자살의 모방효과**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소설 혹은 영화 속 주인공과

같은 허구인물의 자살보다 실제하는 인물의 자살보도 이후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ould et al., 2003).

**기타요인.** 베르테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홈페이지’와 ‘마오리족의 전통적인 장례방식’이 기타요인으로 분류되었다. 15~18세에 자살한 뉴질랜드 청소년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지역 내 자살사건이 발생한 학교들(자살군집)에 소속된 청소년에게 미디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적 연구(Robertson et al., 2012)를 실시한 결과, 친구와 가족들이 자살한 청소년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자살한 고인을 주변인들이 그리워하며 글을 남기고 추모하는 모습을 본 청소년들은 자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더해 며칠 동안 진행되는 마오리족의 전통적인 장례절차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그 장례식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자신의 장례식도 비슷하기를 희망하는지 등과 같은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자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Robertson et al., 2012).

표 5. 베르테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살사망자의 특성

대범주	중범주	소범주	내용	논문편수	
				국내	해외
자살 사망자의 특성	유명인의 자살	-	유명인의 자살(정익중 등, 2010; Gould et al., 2003; Niederkroenthaler et al., 2009)	1	2
	본인과 유사한 대상의 자살	-	연령 및 성별이 유사한 대상(Niederkroenthaler et al., 2009)	0	1
	자살 방법	-	자살방법의 보도(Yang et al., 2013)	0	1
	실제자살	-	실제자살은 허구 자살보다 모방효과가 큼(Gould et al., 2003)	0	1

표 6. 베르테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대범주	중범주	소범주	내용	논문편수	
				국내	해외
기타	-	-	- 자살 청소년을 추모하는 홈페이지(Robertson et al., 2012) - 마오리족의 전통적인 장례방식(Robertson et al., 2012)	0	1

**청소년의 베르테르 효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오로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의 경우, 개인요인은 자살보도에 노출된 횟수가, 미디어 요인은 보도 태도 범주의 동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자살을 흥밋거리로 다루는 것, 보도량 범주의 뉴스보도시간과 보도횟수, 보도방법, 자살정황, 자살 동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자살보도 노출이, 자살사망자의 특성요인은 실제인물의 자살이 허구인물의 자살보다 모방효과가 큰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을 추모하는 홈페이지, 마오리족의 전통적인 장례방식과 같은 기타요인도 모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파파게노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파파게노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을 ‘긍정적 모델링 및 자살예방지식(자살위기 극복 사례, 자살예방정보)’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긍정적 모델링 및 자살예방지식.**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자살관련 내용이 자살위험성을 낮추고 더 나아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디어의 내용에 주인공이 자살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개인이 모델링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자살예방지식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살위기 극복 사례.** Braun 등(2021)은 14세에서 19세의 오스트리아 청소년 299명을 대상으로 자살위기를 이겨낸 이야기의 영상이 자살을 예방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4분 51초의 영상에서 17세 소년이 자신이 왜 자살을 생각했었는지를 이야기하며, 주변인(선생님, 친구,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이었다. 영상은 소년이 도움을 구하려고 한 것을 강조했으며, 영상 말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신건강서비스들을 소개하였다. 실험 결과, 주인공이 자살위험을 극복해낸 영상을 시청한 집단에게서 자살사고가 감소했고, 도움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증가하였다. 이를 정신건강과 관련이 없는 영상을 시청한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비슷한 연구로, Niederkrotenthaler과 Till(2020)은 자살사고 및 시도를 보고한 18세 이상의 오스트리아 성인 266명을 대상으로 자살위기를 이겨낸 이야기가 자살을 예방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집단에게는 자살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도록 하였다. 이야기는 자살위기에 처했던 여성이 자살을 시도하기 직전에 도움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라 위기상담전화에 전화를 걸어 자살시도를 멈추고 상담을 받게 되어 자살위

기를 극복하는 내용이었다. 통제집단은 자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기사나 자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기사를 읽게 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에게서 유의미하게 자살사고가 감소하였다. 또한 Niederkroenthaler 등(2010)은 WHO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발표된 자살보도 권고지침 15개를 바탕으로 위험항목(harmful item)과 보호항목(protective item)을 분류하여 각 항목과 자살률 간 상관을 검토한 결과, 보호항목에는 ‘자살예방정보 제공’이 포함되었다. 상관분석 결과, 기사의 내용이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었으나,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내용일 경우 자살률과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은 자살보도 관련 기사내용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관정보, 자살예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및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자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Till 등(2017)은 대학생 161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상담을 제공하며 자살에 대한 예방지식을 소개하는 자살 예방교육 웹사이트의 영향을 살펴 보았는데, 자살 예방교육 웹사이트를 본 집단에서는 자살예방과 관련된 지식이 증가했으며 개입 이후 기분의 저하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자살사고가 비교적 높은 집단에서 자살 사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자살예방정보.** 자살예방정보의 효과성을 살펴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살예방정보’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관 혹은 서비스를 제시하거나 자살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Cheng 등

본 연구는 미디어에서의 자살관련 내용의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실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를 시행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해 PRISMA

표 7. 파파게노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모델링 및 자살예방지식

대범주	중범주	내용	논문편수	
			국내	해외
긍정적 모델링 및 자살예방 지식	자살 위기 극복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살위기에 처했던 17세 소년(또래)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자살을 극복한 이야기의 영상 (Braun et al., 2021)</li> <li>- 자살위기에 처했던 여성이 자살예방서비스전화(telephone crisis service)를 통해 자살을 극복한 이야기(Niederkroenthaler &amp; Till, 2020)</li> <li>-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Cheng et al., 2018)</li> <li>- 자살을 생각했었으나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기사(Niederkroenthaler et al., 2010)</li> </ul>	0	4
	자살 예방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정보(Cheng et al., 2018; Braun et al., 2021)</li> <li>- 자살예방관련 정보제시(Till et al., 2017)</li> <li>- 자살 예방에 관한 연구결과 인용(Cheng et al., 2018)</li> <li>- 자살 예방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Cheng et al., 2018)</li> </ul>	0	3

2020을 따라 총 38개의 국내외 논문을 선별하여 미디어에서의 자살관련 내용의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실재하는지를 고찰하고 베르테르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위험요인과 및 파파게노 효과를 가져오는 보호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를 통한 자살 위험성과 모방자살행동을 높이는 위험요인 및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2000년에서 2021년에 출판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도별 동향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발행 연도별 자살관련 내용의 미디어 노출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 수는 국내의 경우 2009년과 2014년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해외의 경우 2019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2009년과 2014년에 관련 연구가 증가한 것은 2008년과 2013년에 유명인의 자살이 연달아 발생하여 미디어의 자살노출에 관한 연구가 증가했을 때문일 수 있다. 해외의 경우에는 2017년에 토미 페이지, 체스터 베닝턴과 같은 유명 연예인의 잇따른 자살과 더불어 다른 미디어 요인들이 자살률 증가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한 예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서 방영한 '루머의 루머의 루머'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루머의 루머의 루머'가 방영된 해인 2017년, 미국 내 10대 자살방지협회(The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teen suicide)와 전미 학교심리학자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는 본 드라마가 자살을 미화하고, 자살사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하였다(Ferguson, 2019). 실제로 '루머의 루머의 루머' 방영 이후, 구글에서 자

살방법에 대한 검색량이 증가하였으며(Ayers et al., 2017), 본 드라마의 자살전염성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어(Bridge et al., 2020; Plager et al., 2019; Niederkrotenthaler et al., 2019) 미디어에서의 자살관련 내용 노출이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기도 했다.

둘째, 미디어에서의 자살관련 내용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실재하는지 연구주체별로 살펴본 결과, 자살위험성과 모방자살행동을 높이는 베르테르 효과, 자살위기를 극복하고 예방행동을 높이는 파파게노 효과, 자살관련 내용의 미디어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없음(No effect)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31편의 연구에서 '베르테르 효과'를 확인하였고, 5편의 연구에서 '파파게노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3편의 연구에서 '자살관련 미디어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31편의 논문에서 미디어에서의 자살관련 내용의 노출이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자살사망자가 유명인, 비유명인, 허구인물인 경우 모두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고 자살보도 이후 자살사망자가 사용한 자살방법을 사용하여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에서의 자살내용 노출이 자살행동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Cheng et al., 2007; Saint-Martin et al., 2009; Hassan, 1995; Hills, 1995). 예를 들어, Saint-Martin 등(2009)은 보편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살한 미국인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고 영화를 보고 등장인물이 사용했던 자살방법을 모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한 것을 확인하였다. 베르테르 효과에 있어 실존인물 뿐만 아니라 허구인물의 자살이 청소년을 포함한

전연령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고려했을 때 미디어에서의 자살 보도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살관련 내용을 다룰 때도 베르테르 효과를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베르테르 효과를 확인한 많은 연구와 달리 파파게노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5편이었다. 구체적으로 미디어를 통한 자살보도 시 미디어 지침을 준수하고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자살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를 통해 자살관련정보에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서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예로 Jang 등(2022)의 연구에 의하면 자살방지법이 제정되고 자살보도권고기준이 개정된 이후, 하루 평균 자살률이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유명한 자살보도 이후에도 자살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스트리아에서는 자살보도 미디어지침을 개정 후, 이전에 비해 자살률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Etzersdorfer et al., 2001). 아직 파파게노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많지 않아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한계가 있었으나 미디어에 어떤 정보를 담는지에 따라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음을 제시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했을 때 이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결과로서 추후 자살예방을 위해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3편의 논문에서는 자살관련 미디어 노출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르테르 효과나 파파게노 효과와는 다른 결과로 자살관련 내용의 미디어 노출 이후 자살이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Martin과 Koo(1997)의 연구에서도 유명한 커트 코바인의 자살보도가 호주 청소년의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미디어에서의 자살관련 내용의 노출이 자살위험성을 높이고 자살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베르테르 효과와 자살예방 및 자살위기 극복을 가능하게 하는 파파게노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류하였다. 우선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하는 요인 중 개인요인에는 10대, 15-25세, 44세 이상, 65세 이상, 여성, 자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자살을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이라는 생각, 과거 자살 시도나 자해경험, 물질남용 과거력, 자살보도에 잦은 노출, 정신질환 병력, 가족 혹은 친구의 자살 경험, 정신질환에 관한 가족력, 도시 거주자, 별거, 이혼 사별로 인한 결혼가정이 포함되었다.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하는 미디어 요인에는 자살에 대한 동정적인 보도, 자살을 흥밋거리로 다루는 태도, 자살에 대한 긍정적 보도, 뉴스보도시간 및 보도횟수 많음, 자살관련 내용에 대한 높은 접근성, 자살방법 및 자살장소, 자살자에 대한 자세한 묘사, 자살정황과 자살동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 그 래픽 이미지 제시, 1면 보도나 헤드라인 사용과 같이 두드러진 보도, 프레임 씌우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정보의 부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자살보도가 포함되었다.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하는 자살사망자의 특성에는 유명인의 자살, 연령 및 성별이 유사한 대상의 자살, 자살방법의 보도, 실제자살이 포함된다. 이 밖에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하는 기타 요인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홈페이지와 마오리족의 전통적인 장례방식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파파게노 효과를 가져오는 긍정적 모델

링 및 자살예방지식 요인에는 자살위기에 처했던 17세 소년이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자살을 극복한 이야기의 영상, 자살위기에 처했던 여성이 자살예방서비스전화를 통해 자살을 극복한 이야기,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 제시, 자살을 생각했었으나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기사,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정보, 자살예방관련 정보 제시, 자살예방에 관한 연구결과 인용 및 전문가의 의견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베르테르 효과나 파파게노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보도태도와 보도방법은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가 연합해 2018년 7월 31일에 개정된 권고기준인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르면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 사용할 것, 구체적인 자살방법, 도구, 장소, 동기를 보도하지 말 것, 또한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할 것,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할 것, 자살사건을 보도 시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를 개정 시에는 기존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베르테르 효과 혹은 파파게노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가하여 베르테르 효과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자살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 파파게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 및 청소년을 포함한 전

연령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문헌을 바탕으로 미디어를 통한 자살노출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국내의 경우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이며, 청소년의 자살건수도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청소년기는 다양한 미디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대부분의 소통을 미디어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살관련 미디어 노출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오지희, 김민정, 2014).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청소년 자살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미디어의 자살관련 내용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연예인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파파게노 효과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에서의 자살관련 내용의 노출이 청소년의 자살 위험성과 모방자살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더불어 자살예방 및 자살위 기극복과 같은 긍정적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기에 이는 추후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의 자살 행동 예방과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베르테르 효과와 관련하여 자살 사망자를 유명인과 일반인, 허구인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베르테르 효과의 자살 대상을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이나 일반인으로 한정지어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며, 허구인물에 대해 베르테르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해외 연구에서는 책이나 영화, TV드라마 및 연극의 주인공과 같은 허구인물의 자살이 일반인의 자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확인되었으며, 베르테르 효과를 처음 제안한 Phillips (1974)의 연구에서 18세기 말 괴테의 소설인

‘짧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간된 이후 모방자살이 급증하였다고 설명한 것처럼 허구인물에 대한 자살노출 또한 모방자살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향후 자살관련 미디어지침을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분야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허구인물에 대한 베르테르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셋째, 본 연구는 국내의 논문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미디어에서의 자살내용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미디어에서의 자살내용 노출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주로 베르테르 효과에 집중되어 있으며 파파게노 효과를 살펴본 논문은 드문 실정이다. 또한 파파게노 효과는 자살관련 미디어 노출이 오히려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베르테르 효과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분야로 생각된다.

미디어의 자살관련 내용의 노출이 개인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자살위기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하며, 추후 국내 ‘자살보고 권고기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2004년부터 한국 자살협회와 기자협회, 보건복지부는 자살보도를 통한 모방자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보고 권고기준’을 발표하였으나 이러한 권고기준은 본 연구에서 확인된 베르테르 효과와 파파게노 효과의 영향요인 중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뉴스보도시간 및 보도횟수’나 ‘1면보도 및 헤드라인 사용과 같은 두드러진 보도’, ‘자살에 대해 동정적으로 보도’ 등이 베르테르 효과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현재 ‘자살보고 권고기준 3.0’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를 통해 파파게노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언론인들은 추후 언론보도 시 자살자의 부정적인 정보를 최소화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국내의 경우 ‘자살보고 권고기준’이 있으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는 언론이 많다. 특히 국내의 자살보도들은 자살원인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 자살방법에 대한 자세한 묘사, 자살동기에 대한 추측을 흥미위주로 작성하는 경향이 있어 모방자살을 부추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9). 따라서 추후 ‘자살보고 권고기준’ 개정 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요인들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보도기준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면 언론의 지나친 자살보도를 방지하고, 자살관련 미디어 노출의 영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국가에서는 자살관련 내용의 미디어 노출의 영향을 고려하여 언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분야에도 이를 적용함으로써 자살동조 및 모방자살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질적연구와 양적연구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여 분류하였기 때문에 효과크기를 확인하는 메타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메타분석은 다양한 개별연구결과를 비교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연구들만을 선별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문헌수집 과정에서 시간과 인력의 한계로 한정된 DB에서 영어 혹은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으로 제한하여 논문을 수집하여 다른 언어 및 학문의 문헌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더해 본 연구의 문헌수집과정에서 검색조건 없이 주요어를 검색했을 시 해외문헌의 경우 12,271편, 국내 문헌 418편으로 해외연구가 편수가 상당히 많아 모든 학문영역에서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문헌은 심리학으로 한정하여 수집하였고 국내문헌은 모든 학문영역에서 수집하여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언어와 학문에 제한 없이 다양한 문헌을 검토하고 해외문헌과 국내문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살관련내용의 미디어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조사된 파파게노 효과와 자살관련내용의 미디어 노출의 영향 없음을 보고한 논문은 베르테르 효과 논문에 비해 그 수가 상당히 적어 범주를 상세히 분류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영향요인 또한 베르테르 효과에 비해 현저히 적게 추출되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자살관련 내용의 미디어 노출이 개인의 자살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파파게노 효과에 대해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베르테르 효과가 어떠한 매커니즘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베르테르 효과를 사회학습 이론적 관점, 아노미 이론적 관점과 같은 여러 매커니즘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그 수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탐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베르테르 효과가 어떠한 매커니즘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살관련 내용의 미디어 노출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 했으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부족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 포함 전연령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까지 포함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진행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 참고문헌

- 김미경, 이은희 (2011). 청소년의 피학대 경험, 자살노출 및 자살보도 노출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목표불안정성의 매개역할. *청소년학연구*, 18(12), 403-429.
- 김윤나 (2008).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분석: 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3), 139-168.
- 김은영, 김병석 (2020). 대학생의 집된 느낌,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무망감의 매개효과와 자기자비, 성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287-313.
- 김정숙, 김기현, 황세영 (2016). 동북아 청소년 정책국제비교 연구. *인사말*, 39.
- 박은옥 (2014). 한국 성인의 성별 자살생각 관련 요인 분석. *농촌의학·지역보건*, 39(3), 161-175.
- 배상률, 고은혜 (2015).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36.
- 배준성, 허태균 (2010). 자살 보도에 대한 지각과 인식: 사회학습효과와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2), 179-195.

- 보건복지부 (2009). 자살보도가 모방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240554945394\\_20090424153545.hwp](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240554945394_20090424153545.hwp&rs=/upload/viewer/result/202301/)  
&rs=/upload/viewer/result/202301/에서 검색.
- 서동우 (2001). 자살에 의한 사망,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 *보건사회연구*, 21(1), 106-125.
- 양현주, 변은경 (2016). 자살 관련 보도에 따른 대학생의 자살태도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10), 582-590.
- 오지희, 김민정 (2014). 미디어의 자살 보도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8(4), 167-178.
- 이경진, 조성호 (2004).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667-685.
- 이정기, 최믿음 (2011). 자살보도량과 심리적 변인이 대학생의 자살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인 및 대학생 자살 보도 이용량, 스트레스, 충동성, 자존감, 계획행동이론 변인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2(4), 147-187.
- 임유하 (2021). 빅데이터를 통해 본 ‘코로나 블루’에 대한 이슈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2), 829-852.
- 정승민, 박영주 (2009). 자살보도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조건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8(2), 153-182.
- 정익중, 박재연, 김은영 (2010). 학교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34, 222-251.
- 통계청 (2018). 2018년 사망원인통계.  
file:///C:/Users/User/Downloads/2018%EB%85%84\_%EC%82%AC%EB%A7%9D%EC%9B%90%EC%9D%B8%ED%86%B5%EA%B3%84\_%EA%B2%B0%EA%B3%BC\_vf.pdf에서 검색.
- 한수미 (2012). 대중매체의 자살보도 및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5(1), 133-142.
- 한창현, 유현재, 정휘관, 한택수, 서영지 (2018). 방송 뉴스 자살 보도 시 미화법 사용과 배경 설명이 대학생의 자살 관련 인식에 미치는 영향.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17(1), 89-120.
- 허인영, 최상천, 이정아, 안정환, 민영기, 정운석, 조준필, 김진숙 (2009). 베르테르 효과의 영향; 의도적 일산화탄소 중독의 증가. *대한임상독성학회지*, 7(2), 143-149.
- 홍명숙 (2017). 청소년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개발연구*, 17(1), 63-98.
- Ang, R. P., & Huan, V. S. (2006).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Testing for depression as a mediator using multiple regress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7(2), 133-143.
- Ayers, J. W., Althouse, B. M., Leas, E. C., Dredze, M., & Allem, J. P. (2017). Internet searches for suicide following the release of 13 Reasons Why. *JAMA Internal Medicine*, 177(10), 1527-1529.
- Bandura, A., & Walters, R. H. (1977). *Social learning theory*(vol. 1).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 Braun, M., Till, B., Pirkis, J., & Niederkrotenthaler, T. (2021). Effects of suicide prevention videos developed by and targeting adolescent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European Child &*

- Adolescent Psychiatry*, 1-11.
- Bridge, J. A., Greenhouse, J. B., Ruch, D., Stevens, J., Ackerman, J., Sheftall, A. H., Horowitz, L. M., Kelleher, K. J., & Campo, J. V. (2020). Association between the release of Netflix's 13 Reasons Why and suicide rates in the United States: An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59(2), 236-243.
- Carballo, J. J., Llorente, C., Kehrmann, L., Flamarique, I., Zuddas, A., Purper-Ouakil, D., ... & Arango, C. (2020).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suicidalit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6), 759-776.
- Cheng, A. T., Hawton, K., Chen, T. H., Yen, A. M., Chen, C. Y., Chen, L. C., & Teng, P. R. (2007). The influence of media coverage of a celebrity suicide on subsequent suicide attempts.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8(6), 862-866.
- Cheng, Q., Chen, F., Lee, E. S., & Yip, P. S. (2018). The role of media in preventing student suicides: A Hong Kong experienc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27, 643-648.
- Choi, Y. J., & Oh, H. (2016). Does media coverage of a celebrity suicide trigger copycat suicides?: Evidence from Korean cases. *Journal of Media Economics*, 29(2), 92-105.
- Etzersdorfer, E., & Sonneck, G. (1998). Preventing suicide by influencing mass-media reporting. The Viennese experience 1980-1996.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4(1), 67-74.
- Etzersdorfer, E., Voracek, M., & Sonneck, G. (2001). A dose-response relationship of imitational suicides with newspaper distribution.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5(2), 251.
- Ferguson, C. J. (2019). 13 Reasons why not: a methodological and meta analytic review of evidence regarding suicide contagion by fictional media.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49(4), 1178-1186.
- Frei, A., Schenker, T., Finzen, A., Dittmann, V., Kraeuchi, K., & Hoffmann Richter, U. (2003). The Werther effect and assisted suicide.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33(2), 192-200.
- Gould, M., Jamieson, P., & Romer, D. (2003). Media contagion and suicide among the young.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6(9), 1269-1284.
- Ha, J., & Yang, H. S. (2021). The Werther effect of celebrity suicides: Evidence from South Korea. *PLoS one*, 16(4), e0249896.
- Hagihara, A., & Abe, T. (2012). Effects of media reports and the subsequent voluntary withdrawal from sale of suicide-related products on the suicide rate in Japan. *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 262(3), 245-251.
- Hassan, R. (1995). Effects of newspaper stories on the incidence of suicide in Australia: A research not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29(3), 480-483.
- Hills, N. F. (1995). Newspaper stories and the incidence of suicide.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29(4), 699.
- HKJC Centre for Suicide Research and Prevention,

- (2015). *Recommendations on Suicide Reporting & Online Information Dissemination for Media Professionals*. Hong Kong: The University of Hong Kong.
- Hoffman, M. A., & Bearman, P. S. (2015). Bringing anomie back in: exceptional events and excess suicide. *Sociological Science*, 2, 186-210.
- Hövermann, A., Groß, E. M., Zick, A., & Messner, S. F. (2015). Understanding the devaluation of vulnerable groups: A novel application of institutional anomie theory. *Social Science Research*, 52, 408-421.
- Hwang, T. J., Rabheru, K., Peisah, C., Reichman, W., & Ikeda, M. (2020).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32(10), 1217-1220.
- Jaen-Varas, D., Mari, J. J., Asevedo, E., Borschmann, R., Diniz, E., Ziebold, C., & Gadelha, A. (2019). The association between adolescent suicide rates and socioeconomic indicators in Brazil: a 10-year retrospective ecological study. *Brazilian Journal of Psychiatry*, 41, 389-395.
- Jang, J., Myung, W., Kim, S., Han, M., Yook, V., Kim, E. J., & Jeon, H. J. (2022). Effect of suicide prevention law and media guidelines on copycat suicide of general population following celebrity suicides in South Korea, 2005-2017.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56(5), 542-550.
- Ji, N. J., Lee, W. Y., Noh, M. S., & Yip, P. S. (2014). The impact of indiscriminate media coverage of a celebrity suicide on a society with a high suicide rate: epidemiological findings on copycat suicides from South Korea.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6, 56-61.
- Jones, E. A., Mitra, A. K., & Bhuiyan, A. R. (2021). Impact of COVID-19 on mental health in adolescents: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5), 2470-2478.
- Kim, W. J., Song, Y. J., Namkoong, K., Kim, J. M., Yoon, H. J., & Lee, E. (2013). Does a copycat effect exist in the emergency depart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in Medicine*, 45(1), 59-72.
- Kwak, C. W., & Ickovics, J. R. (2019). Adolescent suicide in South Korea: risk factors and proposed multi-dimensional solution. *Asian Journal of Psychiatry*, 43, 150-153.
- Lee, J., Lee, W. Y., Hwang, J. S., & Stack, S. J. (2014). To what extent does the reporting behavior of the media regarding a celebrity suicide influence subsequent suicides in South Korea?.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44(4), 457-472.
- Lee, S. Y. (2019). Media coverage of adolescent and celebrity suicides and imitation suicide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63(1), 130-143.
- Martin, G., & Koo, L. (1997). Celebrity suicide: Did the death of Kurt Cobain influence young suicides in Australia?.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3(3), 187-198.
- McIntyre, R. S., & Lee, Y. (2020). Projected increases in suicide in Canada as a consequence of COVID-19. *Psychiatry Research*, 290, 113104.

- Moher, D., Cook, D. J., Eastwood, S., Olkin, I., Rennie, D., Stroup, D. F., & Quorum Group. (1999). Improving the quality of reports of meta-analyses of randomised controlled trials: the QUOROM statement. *The Lancet*, 354 (9193), 1896-1900.
- Myhre, M. Ø., & Walby, F. A. (2021). The impact of a widely publicized celebrity suicide on suicide-related internet search activity.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7.
- Naito, A. (2007). Internet suicide in Japan: implica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2(4), 583-597.
- Nesi, J., Choukas-Bradley, S., & Prinstein, M. J. (2018). Transformation of adolescent peer relations in the social media context: Part 2-application to peer group processes and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21(3), 295-319.
- Ng, Y. P., Peh, K. S., Panirselvam, R. R., Chan, W. L., Lim, J. B. Y., Lim, J. T. Y., ... & Chan, L. F. (2021). Malaysian stakeholder perspectives on suicide-related reporting: findings from focus group discussions. *Frontiers in Psychology*, 12, 673287.
- Niederkrotenthaler, T., & Sonneck, G. (2007). Assessing the impact of media guidelines for reporting on suicides in Austria: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1(5), 419-428.
- Niederkrotenthaler, T., & Till, B. (2020). Effects of suicide awareness materials on individuals with recent suicidal ideation or attempt: online randomised controlled trial.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217(6), 693-700.
- Niederkrotenthaler, T., Stack, S., Till, B., Sinyor, M., Pirkis, J., Garcia, D., Rockett, I. H., & Tran, U. S. (2019). Association of increased youth suicides in the United States with the release of 13 Reasons Why. *JAMA psychiatry*, 76(9), 933-940.
- Niederkrotenthaler, T., Till, B., Kapusta, N. D., Voracek, M., Dervic, K., & Sonneck, G. (2009). Copycat effects after media reports on suicide: A population-based ecologic study. *Social Science & Medicine*, 69(7), 1085-1090.
- Niederkrotenthaler, T., Voracek, M., Herberth, A., Till, B., Strauss, M., Etzersdorfer, E., ... & Sonneck, G. (2010). Role of media reports in completed and prevented suicide: Werther v. Papageno effect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97(3), 234-243.
- North, A. C., & Sheridan, L. P. (2010). Death, attractiveness, moral conduct, and attitudes to public figures.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60(4), 351-363.
- Page, M. J., McKenzie, J. E., Bossuyt, P. M., Boutron, I., Hoffmann, T. C., Mulrow, C. D., ... & Moher, D. (2021). The PRISMA 2020 statement: an updated guideline for reporting systematic reviews. *Systematic Reviews*, 10(1), 1-11.
- Park, E., & Choi, S. J. (2013). Prevalence of suicidal ideation and related risk factors among Korean adul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2(2), 88-96.
- Phillips, D. (1974). The influence of suggestion on suicide: Substantive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 of the Werther effec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340-354.
- Pitman, A. L., Osborn, D. P., Rantell, K., & King, M. B. (2016). Bereavement by suicide as a risk factor for suicide attempt: a cross-sectional national UK-wide study of 3432 young bereaved adults. *BMJ open*, 6(1), e009948.
- Plager, P., Zarin-Pass, M., & Pitt, M. B. (2019). References to Netflix "13 Reasons Why" at clinical presentation among 31 pediatric patients. *Journal of Children and Media*, 13(3), 317-327.
- Pouliot, L., & Mishara, B. L. (2011). The Werther effect reconsidered in light of psychological vulnerabilities: Results of a pilot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34(1-3), 488-496.
- Robertson, L., Skegg, K., Poore, M., Williams, S., & Taylor, B. (2012). An adolescent suicide cluster and the possible rol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technology. *Crisis: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33(4), 239-245.
- Romer, D., Jamieson, P. E., & Jamieson, K. H. (2006). Are news reports of suicide contagious? A stringent test in six US cities. *Journal of Communication*, 56(2), 253-270.
- Ruder, T. D., Hatch, G. M., Ampanozi, G., Thali, M. J., & Fischer, N. (2011). Suicide announcement on Facebook. *Crisis: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32(5), 280-282.
- Saint-Martin, P., Prat, S., Bouyssy, M., & O'Byrne, P. (2009). Plastic bag asphyxia - A case report. *Journal of Forensic and Legal Medicine*, 16(1), 40-43.
- Sinyor, M., Williams, M., Tran, U. S., Schaffer, A., Kurdyak, P., Pirkis, J., & Niederkrotenthaler, T. (2019). Suicides in young people in Ontario following the release of "13 Reasons Why".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64(11), 798-804.
- Stack, S. (1987). Celebrities and suicide: A taxonomy and analysis, 1948-1983.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1-412.
- Steele, I. H., Thrower, N., Noroian, P., & Saleh, F. M. (2018). Understanding suicide across the lifespan: a United States perspective of suicide risk factors, assessment & management.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63(1), 162-171.
- Swedo, E. A., Beaugard, J. L., de Fijter, S., Werhan, L., Norris, K., Montgomery, M. P., ... & Sumner, S. A. (2021). Associations between social media and suicidal behaviors during a youth suicide cluster in Ohio.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68(2), 308-316.
- Till, B., Tran, U. S., Voracek, M., & Niederkrotenthaler, T. (2017). Beneficial and harmful effects of educative suicide prevention websites: randomised controlled trial exploring Papageno v. Werther effect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211(2), 109-115.
- Till, B., Tran, U. S., Voracek, M., Sonneck, G., & Niederkrotenthaler, T. (2014). Associations between film preferences and risk factors for suicide: an online survey. *PLoS One*, 9(7), e102293.
- Whitley, R., Fink, D. S., Santaella-Tenorio, J., & Keyes, K. M. (2019). Suicide mortality in Canada after the death of Robin Williams,

- in the context of high-fidelity to suicide reporting guidelines in the Canadian media.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64(11), 805-812.
- Wray, M., Colen, C., & Pescosolido, B. (2011). The sociology of suicid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7, 505-528.
- Yang, A. C., Tsai, S. J., Yang, C. H., Shia, B. C., Fuh, J. L., Wang, S. J., ... & Huang, N. E. (2013). Suicide and media reporting: a longitudinal and spatial analysi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8(3), 427-435.
- Yıldız, M., Orak, U., Walker, M. H., & Solakoglu, O. (2018). Suicide contagion, gender, and suicide attempts among adolescents. *Death Studies*, 365-371.
- 원 고 접 수 일 : 2022. 08. 01  
수정원고접수일 : 2022. 10. 18  
계 재 결 정 일 : 2023. 03. 06

##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the Werther Effect and the Papageno Effect: Is the Impact of Media Exposure to Suicidal Content on Suicidal Behavior Real?**

**Dong Hun Lee<sup>1)</sup> Hee Jun Um<sup>2)</sup> DaSong Jung<sup>2)</sup> Dami Lee<sup>2)</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up>2)</sup>Master's Degree, Department of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esearch trend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classify factors influencing the Werther effect and the Papageno effect by conducting a systematic review of suicide media exposure. To this end, 38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s between 2000 and 2021 were selected using the PRISMA framework.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research papers in 2009 and 2014 in Korea, and in 2019 in other countries. Second, thematic classification of the studies identified the Werther effect (31 papers), the Papageno effect (5 papers), No effect (3 papers). Third, influence factors of the Werther effect were categorized as personal, media-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deceased, and other factors. Also, influence factors of the Papageno effect were classified into positive modeling and suicide prevention knowledge (cases of overcoming suicide crises, suicide prevention information). Finall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Suicide behavior, Media, Werther effect, Papageno effect, Adolescents*

이동훈 등 / 베르테르 효과와 파파게노 효과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미디어의 자살관련 내용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실재하는가?

## 부 록

베르테르 효과, 파파게노 효과, 영향없음 관련 연구목록을 첨부한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s://drive.google.com/file/d/1rgV87TMjXUyDmnALt629ECHYNkR0IfG2/view?usp=sharing>